

# 광주우체국 113년만에 옮긴다

### 대인동에 새 보금자리 ... 9일 이전

### 총장로서도 우편·금융서비스 계속

113년 동안 광주시민에게 우편 서비스를 제공해 온 광주우체국이 총장로 시대를 마감하고 대인동으로 이전한다.

전남체신청은 "우정사업본부 출범 10주년에 맞춰 오는 9일 대인동 신청사에서 새롭게 바뀐 우체국 CI(통합 이미지)와 함께 업무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총장로에 위치한 현재의 광주우체국은 '광주우체국 영업과'로 새롭게 개편돼 종전의 우편·금융 서비스를 통합한 종합 우편·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광주우체국 총 151명의 직원 중 23명이 근무하며 1~2층은 예전대로 우편·금융서비스 영업공간으로, 3층은 우체국 보험관리사 사무실, 4층은 특정 용도를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대인동 광주동부소방서 건너편에 위치한 신청사는 2008년 6월 기공식을 가진 지 2년여 만에 지상 6층·지하 2층 규모로 완공돼 우편물 배달·물류와 함께 우편·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1897년 '광주우체국'로 업무를 시작한 광주우체국의 현 청사는 1963년에 대지 1064㎡·연면적 2454㎡·지하 1층·지상 4층의 건물을 새롭게 지어 광주시민들의 만남과 공연·집회 등 소통 및 휴식의 장소로 시민들과 애환을 함께 해왔다. 이후 도시 상권의 발전과 이동 인구의 증가로 우정서비스 업무량도 늘어남에 따라 2006년 12월 수기동에 물류센터를 개설해 집배·물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향후 대인동 새 청사에서 물류기능을 함께 수행하게 됐다.

주요업무 광주우체국장은 "앞으로도 더욱 편리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우편과 금융 서비스는 물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고객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실천하겠다"면서 "총장로에서 사랑받았던 광주우체국이 언제나 시민들의 가슴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필성기자 kps@kwangju.co.kr



1897년 업무를 시작한 이후 1936년 전신·전화·우편 업무를 총괄했던 광주우체국 전경(광주일보 자료사진)과 1963년 개축 이후 모습, 오는 9일부터 대인동 시대를 열 신청사. (위쪽부터)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성범죄·강도 사건 잇따라 실종·납치신고 급증

### 경찰·소방서 촉각

최근 아동·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연쇄 성범죄 및 강도 사건으로 인해 광주지역의 실종 또는 납치, 미귀가자 신고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선 경찰서와 소방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광주 경찰에 따르면 '김수철 사건'·'서울 여약사 살인 사건'·'남구 진월동 연쇄 성추행 및 폭행사건' 등 강력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각 경찰서와 소방서에는 평소의 배 이상 증가한 하루 평균 4~5건의 실종·납치·미귀가자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다행히 이들 신고 가운데 대부분은 늦은 귀가에 대한 가족의 우려에 따른 것이거나 남·녀간의 사소한 다툼을 납치로 오인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밤 9시 광주북부경찰에 여자친구가 PC방에서 모르는 남자에게 납치된 것 같다는 20대 남자

의 신고가 접수돼 강력반 형사 20명이 출동했으나 단순히 여행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오후 5시께에는 광주시 남구 진월동에 사는 박모(여·40)씨가 실종신고를 했다. 전날 친구 집에 놀러간 딸(12)이 이틀째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남부경찰이 이 초등학생을 찾아 나선 결과, 주변 친구집에서 잔 뒤 다음날 오후 8시에 귀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고인의 접수 내용이 대부분 범죄의 양상과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신빙성도 약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매번 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이 잦은 오인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면서 다른 강력사건 해결이나 치안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나원침 (8091) 김종두



### 성추행·성폭행 시도 대학생 강간미수 검거

광주남부경찰은 4일 술에 취해 대학 여자 친구가 사는 빌라 옆 방의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친구까지 성폭행하려 한 광주 모 대학 1년 휴학생 강모(20)씨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한 빌라 4층에 사는 A(여·32)씨를 껴안는 등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이를 말리던 같은 대학 친구 B(여·21)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2일 밤부터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사는 빌라 '40×호' 옆 빈 방에서 혼자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 복도에 있던 A씨를 껴안았으며, 이를 말리던 B씨를 성폭행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비브리오 패혈증 또 사망

### 고흥서 80대 계장·생선회 등 먹고

지난 2일 해남에 앞서 고흥에서도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가 숨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흥군에 사는 A(84)씨가 고열과 다리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23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지난달 18일 마을 노인정에서 간장 계장과 생선회 등을 먹고 고

열 증세 등을 보여 같은달 21일께 고흥 한 병원을 거쳐 서울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숨진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비브리오 패혈증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해남군에 사는 다른 40대 남자도 비브리오 패혈증 의심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김지희기자 dok2000@

## 폭염 속 식중독 환자 속출

### 신안 하의도서 관광객 7명·고흥선 일가족 5명 치료

연일 30도가 넘는 불볕 더위 속에 식중독 환자가 속출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오전 9시10분께 신안군 하의도에서 관광객 장모(47)씨 등 7명이 복통을 호소하는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진도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날 저녁식사로 닭고기와 순대 등을 먹은 뒤 새벽부터 복통과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새벽 3시56분 고흥군 동일면에서는 전날 오리, 계장 요리 등을 함께 먹은 일가족 5명이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광주에서 무등산을 오가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20여명과 송원여고 학생 60여명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선 반드시 손을 씻은 뒤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보관해야 하며, 조리식품은 중심부 온도를 74도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해 익혀 먹어야 한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완도해상 30대 남자 번사

4일 오전 8시 20분께 완도군 노화읍 도청리 항포구 앞 해상에서 신원 씨가 떠 있는 것을 양식장에 가던 박모씨가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발견 당시 이 남성은 회색 줄무늬 남방에 검은색 체크 반바지를 입고 검은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으며, 얼굴과 왼쪽 팔 부분에 긁힌 상처가 있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 영동한 곳 전화 '처형 바퀴라' 행패



영동한 곳 전화 '처형 바퀴라' 행패

영동한 곳 전화 '처형 바퀴라' 행패

영동한 곳 전화 '처형 바퀴라' 행패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50m 고공서 자살소동

### "밀린 임금 달라" 진도 조선소 50대 크레인 기사

4일 오전 10시께 진도군 근내면의 한 조선소에서 크레인 기사 하모(53)씨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50m 높이의 크레인에 올라가 5시간여 동안 자살 소동을 벌였다.

경찰은 매트리스와 구급차를 대거 시키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

비했으며, 허씨를 설득해 5시간 30분 만에 크레인에서 내려오도록 했다.

허씨는 21개월치 임금 5000여 만원을 받지 못하자 크레인에 올라가 자살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 '폭발 위험' 中 가짜 냉매 광주·전남서도 대량 유통

### 94통·승용차 1880대 주입 분량 ... 경찰, 7명 검거

중국에서 들여온 차량용 가짜 냉매 가스를 광주·전남 등 전국의 자동차 공업사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냉매가스는 차량 부품을 부식시키고, 폭발의 위험성도 있어 올해 초 냉매가스를 주입한 운전자들은 차량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중국산 가짜 냉매가스를 광주·전남 등 전국 공업사 140여곳에 납품한 가스수입업체 S사 대표 이모(32)씨 등 7명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중국 광둥성과 산둥성에서 가짜

냉매가스 4019통(54t)을 수입한 뒤 이중 3002통(41t)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중형 승용차 6만여대에 주입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4억2000만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에 승용차 1880대에 주입할 수 있는 냉매가스 94통이 유통됐다. 광주는 북구 본촌

동과 북동 등 2곳에 냉매가스 6통(승용차 120대 분량)이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은 광양 40통(≈ 800대)·목포 37통(≈ 740대)·고흥군 10통(≈ 200대)·해남 1통(≈ 20대) 등이 유통됐다.

이 가스는 가정용에어컨 냉매가스에 오존층 파괴 물질을 함유한 불량 가스를 섞은 것으로, 철과 알루미늄을 부식시키고, 불꽃에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 차량 화재를 일으킬 위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6월 경기 안산에서는 벤츠 등 승용차 5대가 이 냉매가스를 충전했다가 에어컨 핵심 부품이 파손돼 차량 한 대당 수백만원의 피해를 봤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6월 에어컨 냉매가스를 충전한 소비자는 차량을 점검하거나 카센터에 정품 여부를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